

상악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과 초기고정

이 백 수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상악 구치부는 정상적인 치조골의 경우 골의 양은 충분하지만 골의 질이 약해 임플란트 식립시 초기고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또한 발치후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상악동과 근접하여 골의 높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악 구치부에서 임플란트의 식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골이식 즉 상악동의 측벽을 통한 상악골 이식술과 임플란트의 식립시 상악동저를 거상시켜 이식하는 방법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부위의 골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잔존골의 양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며 상악동저에 이식되는 골의 종류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임플란트의 식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립시의 초기고정이며 이는 상악 구치부 특히 상악동저 거상술 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식된 골이 형성되는 기간동안 임플란트의 고정성은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 뿐만아니라 이식된골의 골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식된 골 특히 합성골이나 이종골이 골을 형성하여 골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므로 보철물이 제작되어 기능을 하는 초기동안에는 잔존골의 골량이나 골질이 임플란트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상악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시에는 식립술과 골이식술의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재에서는 골질이 불량한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 식립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생각해 보고, 상악동저 골이식의 예후를 예견하므로써 초기고정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자약력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수료
-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구강외과 제1강좌 객원강사
- 스위스 베른의과대학 두개지악안면재건외과 객원교수
- 스위스 베른치과대학 구강외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